

국립공원 내 사찰경내지

“제외시켜 달라”

조계종 본사주지회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역사문화보전지역 변경 등 촉구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가 사회적 파장(본지 제610호 1면 기사 참조)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조계종이 정부당국에 사찰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돼 수행 환경 침해와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 온데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요구됐다.

해 국민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람이 1억1000만명에 달하는 사찰 소유토지를 공원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는데도 정부당국은 마치 국립공원 구역이 국공유지인양 홍보하고 있다는 것.

매포소 이전 문제와 문화재관람료 인상 문제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종단 위계질서 바로잡겠다”

조계종 호법부장, 마곡사 주지 문제 등 엄정 조사·처벌 방침 밝혀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이 공주 마곡사 주지 구속건과 부산 마하사 지종 스님 입적과 관련해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기강을 바로잡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은 피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호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1월 22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해설사 보고서’ ‘불교와 사회’ 등 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불교문화해설사 활동현황 설문조사 보고서>와 <불교와 사회>를 발간했다.

<불교문화해설사 활동현황 설문조사 보고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단 소속 사찰안내팀 포교사들의 활동실태를 함께 조사해 교차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분석했다.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

20~21일 포교전진대회

불기 2551년 조계종 포교전진대회가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는 슬로건으로 1월 20-2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다.

제32기 조계종 행자교육

3월 6일부터 직지사서

조계종 제32기 행자교육이 3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서에서 진행된다.

‘대권후보’ 들의 佛心잡기 시작

이명박·박근혜·손학규 등 종단 ‘발길’

올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발길이 불교계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을 의식한 듯 정치·사회·경제에 대해 '어려움' '난국' '위기' 발언을 쏟아냈지만, 지관 스님과 정산 스님은 '건강하라' '불교 공부하라' '지혜로 국민 뜻 모으라' 등의 대답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지사에게도 지관 스님은 "대립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덕담만을 건넸다(사진 가운데).

김원우·박봉영 기자

태고종 22일 신년하례

선암사서 종단발전기원법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22일 12시 종정 혜소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태고종립 선암사에서 '종정에 하신년 하례회와 함께 종단발전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중앙총의회 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총광 스님이 9일 관문사에서 열린 기념사업회 현판식을 봉행하고 있다.

‘상월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회’ 현판식

'상월원각대조사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2011년까지 4년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신년하례회 봉행

미륵중, 김해 관음정사서

미륵중(총무원장 송정)은 1월 8일 김해 김해 총본산 관음정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중앙총의회장 지은 스님, 전국의 총무원장과 종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례식에서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올해 종단의 교육을 책임질 승가대학을 개원하고, 전국교구별 승려 합동교육과 신도들에게는 미륵 10선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성명서 호소문

눈 내린 길을 발자국을 어지러히 남기며 가지마라. 뒤에 따라가는 자의 길이 되나니.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승가대중에 조심스럽게 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 제주도 23교구 관음사는 저희들의 행정적, 정신적 본사입니다. 본디 출가본사는 아니었지만 하염없이 가는 세월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제주도 지역의 승가대중으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총무원의 제주도 불교가 어느 한 승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종헌종법을 어기고 제주불교를 짓밟는 해종행위를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 23교구 산중총회와 제14대 중앙총회위원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교구 선관위원장(현광스님), 현 직무대행(웅주스님), 회형 중심제라는 사법을 만들어서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간 회주(중원스님)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둘째 : 현 관음사 집행부 체제에서는 어떠한 선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중용의 소임자를 임명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정상화를 위한 재적승 및 제주지역 조계종 말사 주지 모임대표 불기 2551년 1월 혜은·진우 외 합창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종단의 큰 스님들께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제주지역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입니다. 제주 한라산 관음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입니다. 제주지역의 불자들은 여러 종파를 초월하여 관음사가 저희들의 정신적 귀의처입니다.

이제 제주지역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심과 원력 보리심을 키울 수 있는 감로수를 부어 주십시오.

불기 2551년 1월 10일

제주불교거사팀 (사)제주도 불교청년 연합회 관음사 자비회, 대불련 제주동문회, 제주불교법우회